



2011 **5**

마산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

통권 제317호

발행:이종섭 / 총무:구해룡 016-9567-6797

편집:제갈선광 010-5146-4925 / mail: wing44@paran.com



- 3.15부정선거 당시 -

어머니의 靈感과
용실이의
의협심을] 생각하며...

조창식



때는 자유당 정권시절인 1960년 3월 15일, 우리나라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나 부정선거로 밝혀져 이날 밤 마산에서 시민들이 대대적인 봉기를 시작하였다. 부정선거에 항거한 마산시민들의 거대 봉기 시, 우리들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그날 나는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진행되던 밤 8시 경 완월동에서 형님(마고)과 같이 자취를 하고 있었고 시청 쪽에서 불길이 하늘높이 솟아 오르고 총소리가 완월동 계곡까지 메아리 쳤을 때 자유당의 독재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마산시민들의 욕구임을 감지했다. 나는 무작정 총성이 들려오던 자산동 쪽으로 달려가 시민들과 합세하여 고등학생 몸으로 당시 정부에 맞섰던 것 같다.

시민들의 움직임에 우리 마산고등학교는 물론 마산상고, 마산여고, 성지여고 등 고등학생들의 순수한 합세는 그야말로 특별히 이념적 분담 역할에서 보다는 군중심리에 편승한 한 시대 젊은이들의 거대한 행렬이었다고 봐진다.

그러나 우리들의 앞을 정부군 트럭이 가로 막으면서 헤드라이트가 우리의 걸음을 당황하게 했다. 나는 이때 길가 대문 쪽으로 몸을 피신하였다. 잠시 후 어느누구가 내 손을 잡아끌고는 순간 내 머리를 망치로 내려쳤던 것이다.

이때 내 뒤를 계속 따라왔던 우리 주인집 딸(국민교 6년)의 목소리가 “오빠야”

하며 절규하는 것 같았고 나는 온 몸이 하늘을 올라가는 느낌이었고 얼마 후 마산시청 바닥에 내가 뒹굴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 나는 무술경관이 내려친 망치에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았고, 트럭에 몸이 실린 채 마산 시청 대강당까지 당도하였고, 당시 그 곳에는 나 외 수많은 시민들이 잡혀 와있었다.

그날 밤 데모 주모자 색출을 위한 조사가 계속되었는데 사실 나는 어느 누구의 사주도 없었고 자발적으로 데모 군중에 휩쓸려 합세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 나에게서는 남다른 어려움이 계속되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손가락의 비틀림과 손톱의 충격, 혹은 세차게 맞는 등 어린 학생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너무나 아픈 고문을 감수해야 했다. 밤을 꼬박 새우고 이튿날 아침에 나는 마산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되어 역시 그곳에서도 부인하는 놈으로 꼬리표가 붙었던지 모진 조사를 받았고 3일후쯤인가 오후 4~5시경 되었을 때 어느 누가 내 이름을 불러서 창살 밖을 빠져 나왔다.

우리집 주인 아들 재혁형님의 도움에 의해 4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되어 각서 1장을 써주고 풀려났다. 그때 각서 내용은 지금 생각해보면 폭행이나 고문당했다는 사실이 없이 부드럽게 조사를 받았고 결국 주모자들과의 공모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풀려났다는 내용의 각서였던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기다시피 다리를 절며 걸어서 자취방 대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상기된 모습으로 나를 반기는 형님의 얼굴이 기억되고 주인집 아주머니와 아저씨, 주인집 형 등 모두가 나를 반겼다. 그날 밤 형님이 손수 장작으로 불을 지펴준 방에서 잠을 청했다. 형님의 말에 의하면 밤새도록 끙끙대며 못내 아파하더라고 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형님이 아침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어떤 여자 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들이 잘 있나”라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다름 아닌 그 사람은 우리 어머니였다. 형님이 어머니를 맞이하여 방으로 모셨다.

나는 이때 어머니를 보는 순간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서러운 그 마음이 터지고 만 것이다. 엄마는 “야가 와이러노? 너그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꿈자리가 너무 시끄러워 잠도 못잡는데”라고 하면서 내손을 잡고는 나를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내 머리, 다리와 손톱 그리고 엉덩이 쪽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던 장면을 본 어머니는 그 피비린내 나던 3.15 밤의 총성을 생각했던지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았다.

결국 형님은 어머니에게 대충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어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있었음을 나는 목격할 수 있었다.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기억한다.

이때 당시 이 자식의 아픔이 오죽했을까 그러나 이 아픔을 더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에서인지 더 이상의 눈물을 보이지 않고 나를 꼭 껴안고는 말이 없었던 것 같았다.

그 후 나는 어머니를 따라 시골 진영으로 내려갔다. 어머니는 집에 키우던 닭을 손수 잡아 백숙과 기름이 뚝뚝 뜬 국물을 나에게 먹였던 것 같았다.

원고접수 E-mail : wing44@paran.com

이렇게 마산에서 시작한 그 물결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4.19에 이어졌고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은 뜨듬뜨듬한 특유의 음성으로 국민들의 뜻이라면 해야하겠다는 성명을 라디오를 통해 전국적으로 방송되었고 이 나라의 기틀은 이때부터 새롭게 잡히기 시작했다.

나는 경찰서에서 신병이 풀려나 자취방으로 돌아왔을 그 때 우리 반 친구 김용실이가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기억한다. 용실이를……. 그는 급장이었고 급우들과는 장난기 어리게 항상 웃는 얼굴에다 리더였다.

기억컨데 점심시간이 되면 용실이는 자기 누린 도시락 뚜껑을 들고 다니면서 나무젓가락으로 다른 친구들의 밥을 옮겨 담았고 그것은 용실이가 덩치가 크다보니 많이 먹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물론 자기 밥도 가져와 먹은 후 다른 친구들의 밥을 추가로 침범한 것이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용실이가 나무젓가락으로 내 도시락을 찍었다. 그런데 내 밥이 전체의 2/3정도 용실이의 젓가락에 팔려갔던 것 같았다. 용실이가 밥덩어리를 다시 쪼개려고 하기에 나는 그냥 됐다고 했다.

그것이 인연이 되었는지 그 후 나는 용실이의 의리를 읽을 수 있었다. 내용인즉 내가 어느 친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야구장 뒤편 산에 올라가 당시 남강승, 변관석, 박준용인가 이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친구와 단둘이 이분다치를 하게 되었는데 나는 그때 당시 뚝심이 세었던지 오른팔로 친구의 목을 감은 채 친구를 눌렀고 그 친구는 자기 왼팔로 내목을 감은 채 내 밑에 깔렸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내 얼굴을 세차게 다양하게 가격했다. 이것이 계속되다보니 내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만신창이가 되었고 나는 왼손으로 그 친구를 힘차게 내리쳤으나 그 가격에는 충격이 없었던지 그 친구 얼굴은 멀쩡했다.

후에 이 장면을 용실이가 어떻게 하여 봤는지 내 얼굴을 보고는 그 친구를 단숨에 꼬집어 올리더니 오른손 주먹으로 세차게 내리쳤다. 그 친구는 나뒹굴러졌다. 이것이 용실이의 의리였나 싶었다. 그것은 용실이가 내 밥을 2/3정도 먹었던 것에 대해 늘 고맙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생각했고 또한 약한 자에 대한 동정, 그리고 용실이의 참 의협심이었나 생각된다. 나는 당시 너무 고마웠고 살았구나라고 했던 것 같았다.

그러나 용실이도 우리 곁을 이미 떠났으니 21기 붉은 딱지들은 다시 일어섰는가 보구나. 그것이 2011년 3월11일 밤 3.15의거 김용실 열사의 추모 콘서트의 밤이었다. 김준형, 조정웅, 강신평, 박용우, 박진형, 이강복 등이 주축이 되어 부산, 서울 친구들까지 마산에 초청하여 큰 행사를 치렀지 않은가! 기다리 종길이를 위시하여 보이지 않는 역할분담을 한 마산의 건아들 장하다. 그래서 과연 이 행사는 훌륭했고 자랑스러웠으며 이후 우리들의 기력이 다할 때까지 길이길이 이어져 역사의 장을 장식해야 한다. 이날 오랜만에 만난 마산고 21기 70년의 노장들은 서로 얼싸 안으며 뒤풀이 술잔에 맞춰 그때의 용실이와 우리들의 가슴을 뒤늦었지만 새롭게 확인했다. *

동창회 회비를 완납하여 동창회를 활성화 합시다.

미납된 회비는 이월되어 납부해야 하오니 양해하시어 완납하도록 합시다.



완연한 봄 날씨도 어느덧 자연섭리에 순응하기 마련인가 보다. 이 아름답고 눈부신 계절, 생명이 약동하는 신록의 오월! 녹색의 푸르름을 짙게 繡놓는 신록의 계절이 시작되는 계절의 여왕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여름이 들어선다는立夏가 어린이날 바로 뒷날이다. 징검다리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로 점철된 오월이기에 삶의 길목에 서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의미심장하게 설렌다.

지난달 21일은 남성동에 있는 고바우집<한 달 전에 개업한 친구(마중8회)>에서 낮에는 부인회가, 그리고 저녁에는 오리보쌈정식을 메뉴로 동창월례회가 열렸는데, 대형 룸의 참가에는 청아하고 단아한 도자기가 놓여있는 고전적이고 토속적인 예술의 미가 분위기에 약한 내 마음을 動하게 한다.

한문에, 春雉自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다 雉(치)는 꿩을 말하며, 암컷을 ‘까투리’라 하고 수컷은 ‘장끼’라 부르며, 어린 새끼는 ‘꺼병이’라 한다. 봄철에 꿩이 스스로 운다는 뜻이니 시키거나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제 생각대로 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소외된 친구들은 사심을 버리고 부담없이 찾아와야 한다.

말은 타보아야 알고 사람을 사귀어보아야 안다고 했다. 그래도 노후에는 반드시 친구가 있어야 한다. 이 불리간에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음이 진정한 친구 아니겠는가! 친구란 스스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마음을 열고 그 친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친구로서의 마음을 쉽게 열어줄 것이다. 그러지 못하다면 친구로서는 달갑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친구는 반드시 친구 앞에 名詞가 붙게 마련이다. 즉, 술친구 등 목적에 부합하는 한시적인 친구일 뿐이다.

참석자

곽영식 구해룡 김기태 김기현 김방태 김성규 김순택 김영 김용인 김정수
 김준형 김태욱 박소학 박영환 배복기 배종길 변민욱 변재국 변재웅 손기홍
 손동개 여경현 우용태 이무일 이성환 이종섭 이종량 장영의 정정용 정종필
 정창봉 제갈선광 조남규 조정웅 최광수 이상35명

(주)대아레미콘
주식회사 신우공업

대표이사 회장 신 용 운

마산연락사무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3동 164-20
 (양덕시장상가 2층)

055-295-8600
 055-587-8856(대아본사)
 055-587-4400(신우본사)



지난 4월 21일 19시, 연산로타리 부근 검돈가에서 동창 19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월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토의 사항은 지난 4월 13일 전임 회장단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 추인을 받았고, 50주년 행사 소요경비 분담금 모금방법은 시간을 두고 연구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참석자
 강신평 구삼진 김덕조 김대균 김성광 김수용 김준태 김지남 남원일 박진형 박정길
 박해량 이의승 이장우 이황구 조창식 조영민 최진화 황선치 이상19명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2011년 4월

수 입			지 출		
적 요	금 액	비 고	적 요	금 액	비 고
회비	580,000	김영 15만, 우용태 10만	회보	200,000	인쇄(봉투포함)
		박소학 배복기 여경현 이성환 장영의 정정용 각5만원		55,000	발송(수첩2권포함)
		정창봉 3만원	월례회	440,000	고바우집
			경조비	200,000	방학기 혼가 김기현 혼가 각10만
		식품	119,810	동창회사무실	
협찬	200,000	방학기(재경)	렌탈비	19,900	정수기
CMS	171,000	마고장학회	기타	6,000	동창회 TV리모콘
모금함	210,000	동창회 사무실	유선	5,500	동창회사무실
			관리비	120,100	
			수당	150,000	총무
수입계	1,161,000		지출계	1,316,310	
전기이월	1,381,433		차기이월	1,226,123	
합계	2,542,433		합계	2,542,433	

FotoGallery

어버이날을 생각합니다.
 5월이니까요.

가끔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면
 자식들 앞에 어버이날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생강나무


Fuji S5pro | Sigma 18-250mm | F6.3 | 1/250 | 250mm | -0.3EV | ISO 125

위 사진 블로그에서 보기 : <http://wing91.tistory.com/2507>



- ♣ **곽호남 동문**
동문의 주소입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67-2번지
포스코건설 플렌트사업본부
승강사업그룹
- ♣ **박광지 동문**
동문의 주소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54번지
현대아파트 102동 604호
- ♣ **이무일 동문**
동문의 새 주소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1동 29-3번지
- ♣ **이흥규 동문**
동문의 새 주소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1동
반도아파트 2동 211호

- ♣ **정정용 동문**
방학기 동문의 315의거 추모삽화를 액자로 만들어 동창회 사무실에 기증하면서 동문기우회를 위한 마독그림 한 폭도 함께 기증하였습니다.
- ♣ **제갈선광 동문**
동문의 휴대폰 번호 변경되었습니다.
010-5147-4925 > 010-5146-4925




祝結婚

김기현 동문 의 장녀 화숙 양
박숙희 여사

새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해 드립니다.

일시 : 5월 21일(토) 오후 1시
장소 : 창원 오페라웨딩홀
에메라드실(구, 가든예식장)




祝結婚

방학기 동문 의 딸 소라 양
백문희 여사

새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해 드립니다.

일시 : 5월 28일(토) 오후 6시
장소 : 서울 한강변 잠원지구
수상레스토랑 <오옌(ON)>



祝結婚

김대균 동문 의 아들 태훈 군
백정자 여사

새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해 드립니다.

일시 : 5월 29일(일) 오후 1시
장소 : 부산 농심호텔
허심청 2층 대청홀

신원주유소

대표 김 채 열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975-1
(마산자유수출지역 내)

수출 출입문에서 신원주유소 방문은 무조건 통과됩니다.

난방유 가정배달 신속서비스
(불순물없는 정품, 정량 공급)

255-0885
017-411-0016(휴대폰)
255-0845(팩스)

에서 봤던 멋진 물건을 생각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 수밖에 없다.

행상을 하는 엉큼한 작자가 낮에 눈여겨보아 두었던 여인이 탐이 나서 저녁까지 애타게 기다렸다 슬쩍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이속하도록 어떻게 하면 따먹을까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던 중 마침 주인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때다 싶어 수작을 걸어본다.

“지금 무슨 소리가 그리 요상스럽소?”

“아따 참견은, 안사람과 잠시 노닐었소이다.”

“주인은 모르시나 본데 운우의 정에는 두 가지 품격이 있소. 깊이 꽃아 오래 노닐어 여자로 하여금 뼈마디를 녹게 하는 것이 명품이요, 격한 소리를 내며 잠시 동안 요란을 떨다가 쉬 싸버리는 것은 하품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 그러면 내 남편은 하품이 아니던가. 지금까지 하품도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명품의 맛은 어떤지 궁금해 죽을 지경이다

“여보 여보, 큰일 났소. 아침밥을 할 쌀이 떨어졌는데 빨리 방아를 좀 찧어와야겠소.”

여자가 남편의 등을 떠밀어 보내고는 수줍게 행상을 살짝 불러 본다.(다음호에)



제5차 마고21기우외 바둑대회

지난 4월16일(토) 동창회사무실에서 마고21기우회 제5차 바둑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상자와 참석자 그리고 협찬자 등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 상 자			협 찬 자	
1등	손동개	10만원	박필근	20만원
2등	박소학	5만원	변재국	10만원
3등	손동개	3만원	김방태	5만원
4등	정창봉	2만원	김채열	5만원
			김성규	3만원
			신상규(상고)	5만원

참석자

박필근(5단) 손동개(5단) 박소학(3단) 우용태(3단) 남기제(2단) 변민욱(초단) 신창한(초단) 정창봉(2급) 이성환(3급) 김기현(3급) 손기홍(3급) 배종길(5급)

참관자

구해룡 김방태 김성규 김용인 김준형 김채열 김한경 변재국 이종량 정정용

본부동창회 제작 : 구해룡(농협) 821155-56-153953



진해
드림로드 (2)

장정치

오른쪽 도로를 따라 오르면 불이문 석등 두 개가 지키고 있는 입구에는 평화 통일기원 일봉시비가 있어 일봉사 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삼장법사 일봉 서경보 스님의 시를 새겨 놓았을 뿐 절 이름은 삼밀사이다.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서면 2층 구조로 된 중국풍의 종각이 보이고 그 뒤로 대웅전이 있겠으나 오른쪽의 시멘트 포장길로 길을 재촉 한다. 가다보면 비포장길 또 가다보면 포장길이 반복되며 시골신작로길 같은 넓은 길로 15분 여 오르면 넓은 공터에 진해드림로드(임도) 현황도가 이제야 안내를 해 준다.


안내판 맞은편 나무테크길로 180m 오르면 하늘마루라 이름붙인 곳에 정자가 있지만 굳이 정자에 오르지 않아도 시야가 확 트여 진해 시가지가 한 눈에 다 들어와 가히 하늘에서 바라본 듯 시원스레 펼쳐진다. 점점이 떠 있는 작은 섬들, 그리고 진해만에서만 볼 수 있는 무수한 함정들..., 아무리 쳐다봐도 지루하지 않고 가슴은 더 시원해진다.

한참 만에 다시 되돌아 내려와 마주보이는 간지 화장실 쪽으로 오르는 산길이 보여 이제부터 오붓한 산길로 접어드는가 했는데 안내판을 들여다보니 웬걸 산길은 장복산으로 향하고 드림로드는 그 옆 비포장길로 들어서야 하고 역시 신작로 같은 임도를 따라야 한다. 빌어먹을 여기까지 오는데도 재미가 없었는데 또 산길이 아니구나 싶으니 부아가 실실 치밀어 오르고 뒤늦게야 이 길은 숲속 산책길이 아니고 임도를 개설했다는 생각이 스친다. 그래서 Dream Road라 했는데 드림만 생각하고 아주 근사한 산책길로 착각을 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을 텐데 글을 쓸 소재도 없고 철래 철래 내리자니 심심해서 죽을 맛이다. 이럴 때는 하는 수 없이 조각공원

7쪽에 이어짐-

2011년 5월 월례회 안내

<p>월례회</p> <p>일시 : 23일(월) 오후 6시</p> <p>장소 : 마산꿈장어횃집(244-3912) 남성동어시장 화랑장식 아래</p>		<p>부인회</p> <p>일시 : 23일(월) 12시 30분</p> <p>장소 : 마산꿈장어횃집(244-3912)</p>
--	---	---

